특강4

Color Make-up Day <사회, 세상 회복>
“세상을 바꾸는 여성의 리더십과 역할”

이경숙 총장

1.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회복되어야 할 세상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훼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디모데후서 3:1-5)

1) 물질만능주의 팽배 -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범죄와 인간관계의 단절은 물질 숭배로 인한 외형적인 부와 허세에 집착하는 데 기인한다. 이는 거짓과 탐심을 잉태하고, 소모적인 경쟁과 비교 의식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두 다르게 만드신 생명에 대해 영적 눈으로 보는 것을 방해하며 인간적인 편견으로 평가하게 만든다.

2) 경배 없는 삶 -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삶이 이루어진다는 그릇된 믿음은 감사와 기쁨을 빼앗고 있다. 원하는 것을 얻으면 쉽게 교만해지고, 부족한 부분에 치우쳐 불평과 원망이 앞서는 사람들이 많다. 이처럼 세상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며 값없이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태도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덧없는 쾌락과 불의에 빠지는 죄를 범하게 한다.

3) 리더십의 부재 - 사회를 이끌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들의 말과 행동의 불일치는 물밑에 쌓여 맑은 물을 흐리는 진흙처럼 불신을 초래했다. 불신은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사회풍토의 근원이 되었고, 책임 회피와 이기주의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지도자적 위치 여부를 떠나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리더십의 부재를 한탄하는 것도 문제라 여겨진다.

2. 크리스천의 십자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사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디모데전서 6:11-12)

1) 사회 회복 : 섬김 문화
사회 회복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일이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신뢰는 타인을 존중하게 만든다. 또한 나눔과 섬김의 미덕을 실천하는 바탕이 된다. 따라서 섬김문화의 확산이 중요하다고 본다. 남을 배려하고 귀하게 대접하는 섬김을 통해 화목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섬김은 마음의 문을 열게 하며, 관심과 행동을 이끌어내고, 신뢰를 강화하여 환경을 초월해 밝고 조화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정신적 원동력이 될 것이다.

2) 세상 회복 : 하나님 중심의 지도자

세상의 혼란과 분쟁은 올바르지 못한 비전과 리더십의 영향이 크다.
삶의 중심을 자기에서 하나님께로 옮겨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일할 때 세상을 정결케 하는 리더십이 발휘되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리더십의 덕목을 성경의 인물을 통해 알 수 있다.

① 요셉과 같은 형상

요셉은 제대로 된 인격과 성품을 지녔다. 통전성(通全性)을 갖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언행이 일치했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았고 항상 겸손, 정직, 투명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 위에 진실한 성품과 능력을 더한다면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지도자를 기꺼이 따르며 신뢰하고 존경하게 될 것이다.

② 바울과 같은 집중력

바울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오직 복음 증거하는 일에 집중한 사도였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명확한 목표를 잡고 그것을 위해 매진하는 인생을 살았다. 이러한 열정과 집중력은 주안에서 두려움을 갖지 않게 한다. 또한 동역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는다. 하나님께 받은 재능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헌신, 봉사하는 사람이 더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도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줄 알리라”(요한복음 13:34)
성도가 세상에서 증거하는 방식은 사랑이 최상이라 생각한다. 자식이 부모를 닮아가듯이 크리스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과 기도로 선을 이룰 때, 하나님의 말씀이 땅 끝까지 전파되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리더십의 중심은 사랑이다. 사랑이 없이는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이끌어줄 수 없다.

3. 여성의 은사

하나님께서는 여성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고 본다. 모성애와 포용력, 섬세한 감성과 유연한 사고방식 등 여성의 잠재력은 테러와 폭력으로 얼룩지는 오늘날 지도자의 자질로서 절실히 요구되는 특성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인식에서 여성들이 능력을 키우고 활동의 영역을 넓혀 매사를 지혜롭게 주관한다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풍요로운 미래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 모성애와 포용력: 갈등과 대립을 극복한 화합과 평화의 시대
2) 섬세한 감성과 유연한 사고방식: 휴머니즘을 실현하는 지식정보 사회

4. 결론적으로

사회, 세상 회복에 필요한 것은 상실된 영성을 되찾고 솔선수범하여 신뢰와 섬김의 문화를 선도하는 노력이라 생각한다. 아울러 하나님의 지체가 되는 크리스천들이 리더십을 함양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할 것이다. 이로써 모든 인간 관계와 기술에 하나님 중심의 합당한 목적을 부여해 세상을 화합과 발전의 시대로 바꿔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변화를 창조하는 데 성령의 새 옷을 입은 여성들이 각자의 은사대로 역할을 증대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이경숙